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Apr. 28, 2024

(통권 998호)



오늘의 말씀

“이해를 초월한 평화”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담임목사 정석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우리는 4주간 예정으로 평강의 삶(Peaceful Life) 시리즈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1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평강의 삶 누리기, #2 평강의 삶을 위한 좋은 습관들, #3 염려와 두려움의 극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4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지난 2주 전 우리의 주일 설교의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4:7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빌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의 개념 차이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개념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평화의 차이점을 대조해 봅시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적 평화이며,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무조건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쉽게 말하면 외부조건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 평화라는 뜻입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안정, 개인적 성공, 주변 인물들에 대한 만족 등등 이런 조건들이 평화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안정해지면 평화도 함께 깨어져 버립니다. 극히 가변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 조건들이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평화가 넘칩니다. 이 평화는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구적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하루 평화롭다가 내일 또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긴장이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화의 조건이 모두 외부적 요소에 있기 때문에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구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배들 뒤집어놓을 것 같은 파도가 닥쳐도 배의 고물(뒤쪽)에서 편안히 주무시던 예수님의 마음의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가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던 그 평화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극히 이기적인 의미의 평화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타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만족이나 개인적 욕구 충족에 초점이 맞추어진 평화이기 때문에, 온통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결과가 온다 해도 자신의 세계에 빠져 혼자 평화로우면 그만이니까, 심지어 남의 평화의 요소를 다 빼앗아서 자기 혼자면 편안하면 그것을 평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세상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상처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나 자신의 이기적 만족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관용하는 그런 삶이 수반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외부적 조건보다 신자의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샘솟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 평화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게 만듭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희생적인 사랑이 이 평화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복잡한 일도 불편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평강[에이레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오직 우리 영혼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폭풍우가 가득한 삶의 아픔 속에서 평화를 체험하는 길을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요 15:4-5]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 붙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붙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온갖 수분과 영양분들이 공급되어 가지는 절로 윤택해지고, 때에 따라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로부터 잘려 나간 가지는 그때부터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햇빛 나면 햇빛 때문에 썩습니다. 생명을 가진 나무에게는 어떤 조건도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비 오면 비 와서 자라고, 햇빛 나면 햇빛때문에 건강해지고, 추운 겨울이 오면 강풍을 견디면서 나이트가 하나씩 더해지는 성장과 성숙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잠시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설명된, 그가 사도로서의 삶에서 마주쳤던 생의 폭풍들을 보면 이걸 한 사람이 다 겪어냈단 말인가 싶습니다.

그는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차례나 맞았고, 세 번 태장(곤장)을 맞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고, 세

번이나 파선을 하고 심지어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으며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고후 11:23~28).

만일 환경이 평화의 근원이라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화라곤 모르는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사막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계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역경들 속에서도 날마다 더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들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고후 11:28~30]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었던 그의 친구들에게 편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뛰어넘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 2:17-18]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 3: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 4:4-7]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3주 동안의 우리의 본문들을 한 번 살펴봅시다. 첫째 주 우리들의 본문은 이사야 26:3이었습니다.

[사 26: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지키도록 우리를 권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믿음과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주 본문은 오늘도 인용된 빌립보서 4:6~7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평강의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 길들이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 기도와 묵상의 습관, 마음 속의 분노와 원한을 용서로 푸는 습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습관들을 길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의 극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31~34을 본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분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찬송가 369장의 코러스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도둑질 당하고, 또는 쓸 데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산다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욕의 케이스를 통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데도 걱정을 사서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불행이 덮쳐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평화를 잃어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충격적인 광경은 제자들의 마음을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죠?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환경이 주는 가변적 요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당신이 받게 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고통의 편린들 한 조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평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심지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계시지 않은 이상을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갖고 계셨던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 넘치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평화를 흘려보내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